

생활문화
Life & Culture

1

[위대한 결단-앤디 그로브]
편집광만이 살아 남는다!



인텔(Intel)이라는 회사는 현재 세계 최고의 반도체 회사이다. 전 세계 PC의 80% 이상이 이 회사에서 만든 CPU로 작동되고 있다. 그래서 사람들은 마이크로소프트와 더불어 인텔을 '윈텔' 진영이라고 부르고 있다. 그것은 마이크로소프트의 윈도우 프로그램과 인텔의 하드웨어가 세계시장을 지배하고 있다는 사실을 요약한 단어이다.

앤디 그로브(1936~)는 이러한 인텔이란 회사를 세계 최고의 회사로 만들어낸 장본인이다. 그는 인텔의 창업주도 최대주주도 아니었다. 다만 그는 일개 연구원에서 실력을 인정받아 경영진에 참여 했고 CEO가 돼 강력한 리더십으로 인텔을 반석 위에 올려놓았다.

앤디 그로브는 1936년 헝가리에서 태어났다. 유대인인 그는 어린 시절 독일의 홀로코스트를 피해서 가짜 신분증명서를 만들어서 가까스로 목숨을 건질 수 있었고 2차 대전이 끝난 후에는 소련군의 압제를 벗어나기 위해서 망명을 선택해야만 했다.

1957년 미국으로의 망명에 성공한 그는 피눈물 나는 노력으로 공부를 했다. 전쟁의 공포와 지긋지긋한 가난을 벗어나기 위해서 그는 반드시 성공해야만 했던 것이다. 성공을 위해서 그로브가 할 수 있는 것은 공부뿐이었다. 1963년 박사학위를 거머쥔 그는 인텔에 스카우트 돼 실력을 인정받기 시작했다.

1979년 인텔의 CEO가 된 그로브는 지독한 열정으로 인텔을 키워 나간다. 그는 개인주의가 팽배해 있는 실리콘밸리에서 간섭자며 조련사로 등장했다. 그는 출근시간을 8시로 정했고 전날 아무리 늦게 일했다라도 무조건 8시 출근을 지키게 만들었다. 그렇다고 퇴근시간이 자유로운 것도 아니었다. 그래서 그에게는 '스쿠르지' 피도 눈물도 없는 사람이라는 손가락질이 따라다녔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원칙을 지켰고 조직을 매섭게 휘어잡았다. 어느 정도의 시간이 흐르자 차츰 인텔을 실리콘밸리에서 가장 강한 조직력을 갖춘 회사가 돼갔다.

그리해 인텔=앤디 그로브라는 등식이 성립 됐고 직원들의 존경을 한 몸에 받는 CEO가 됐다. 그는 자신의 저서 '편집광만이 살아남는다' 에서 최고 경영자의 역할을 이렇게 제시했다.

“최고 경영자는 아무리 사소한 변화라도, 조직과 산업 등 주변 환경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만약 이런 변화가 감지되면 기업의 자유로운 의견 수렴을 통해 가능한 빨리, 그리고 간결하고 명확하게 결정을 내리고 조직의 힘을 새로운 목표에 집중 시켜야 한다.”

앤디 그로브는 조직을 아주 매섭게 휘어잡았지만 늘 합리적이었고 스스로 실천하는 리더십을 보여줬다. 그는 조직에만 엄격한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도 무척 엄

격했다. 그는 CEO가 된 후에도 직접 차를 몰았고 출장을 가서도 일반 호텔에 묵으며 스스로 체크인을 할 정도였다. '인사이드 인텔' 의 저자 팀 잭슨은 그의 리더십을 '양치기 리더십' 이라고 불렀다.

“앤디 그로브는 양치기처럼 인텔을 이끈다는 것이다. 양떼들이 올바른 방향으로 가도록 지팡이로 신호를 하고 길을 잘못 든 양이 있으면 개를 풀어서 겁을 준다.”

앤디 그로브는 양치기가 되기 위해서는 “100% 확신하는 것처럼 행동해야 하고, 결단을 행동으로 옮길 수 있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다.

제 1602호 2006년08월02일 발행 중소기업뉴스



생활문화
Life & Culture

2

[위대한 결단-손정의]

일본 최고의 부자인 한국인

2006년 6월 9일, 미국의 경제지 '포브스'는 '일본 최고의 부자' 로 자산총액 70억 달러(약 6조5000억 원)를 지닌 한국계 일본인 손정의(孫正義, 1957~)를 선정했다.

일본에서 재일교포 3세로 태어난 그는 '조센진'이라 놀림을 당하고, 아이들이 이유 없이 던진 돌에 맞아 피를 흘리기도 하면서 울분 속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다. 그는 1974년, 16살의 나이로 미국으로 건너가 고등

학교와 캘리포니아대학교 버클리캠퍼스 경제학부를 졸업했다.

1981년, 일본으로 돌아온 손정의는 IT산업의 태동을 감지하고 그해 9월, 소프트웨어 유통 사업을 시작했다. 자본금 1000만엔에 직원 2명으로 '소프트뱅크'사를 설립한 것이다. 회사를 설립한지 한 달만인 그해 10월, 그는 오사카에서 열린 전자제품 전시회에 참가를 결정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자본금 1000만 엔 가운데 800만 엔을 대형 부스를 빌리는 데 투자하는 모험을 단행했다는 점이다. 부스 규모는 마쓰시타나 소니에 버금갈 정도였다. 대기업 규모 부스를 빌리기 위해 자본금 80%를 투입하는 것은 무모한 짓이라고 직원들은 아우성이었지만, 그는 그대로 밀고 나갔다. 마침내 회사의 사활을 건 전시회가 열렸다. 직원들이 걱정한 대로 체결된 계약은 30만 엔에 불과했다.

하지만 그것이 다가 아니었다. '소프트뱅크'는 이 전시회를 통해서 일본 전역에 자신의 존재를 알리는데 성공한 것이었다. 불과 1000만 엔 규모의 작은 기업이 단 한 번의 전시회를 통해서 대기업 수준의 지명도를 얻었고 그 후 '소프트뱅크'의 매출은 급신장하기 시작했다. 당시로서는 일반인들에게 낯선 소프트웨어 유통 사업이 이 전시회를 계기로 돌파구를 찾았던 것이다.

그 후로도 손정의는 오사카 전시회에서 연출한 것과 같은 과감한 결단을 통해서 일본 IT산업 붐을 일으키는데 성공했다. 그는 1996년 적자벤처였던 '야후 재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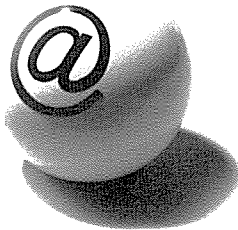
을 인수해서 큰돈을 벌어들인 것을 비롯해서 미국 지프-데이비스 전시회·출판 부문, '컴텍스 쇼'를 주관하는 미국 인터페이스그룹, 미국 메모리 전문업체 킹스톤 테크놀러지, 일본 텔레콤, 세계 최대 통신업체인 영국 '보다폰' 일본법인, 루퍼트 머독과 함께 TV아사히를 인수하는 등 괴력을 발휘하면서 일본 최대 IT 기업군을 거느리고 일본 최고 부자의 반열에 올라섰다.

한때 IT 거품이 붕괴되자 많은 사람은 인터넷이나 브로드밴드 관련 사업에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지만 손정의는 앞으로 300년 동안은 인터넷이 인간을 더 행복하고 생산적으로 만들어 줄 원동력이 될 것이라고 주장하며 자신만의 경영철학을 밀고 나갔다. 1988년 6월, 빌 게이츠와 함께 한국을 방문한 손정의는 김대중 대통령과 만난 자리에서 대통령이 한국경제가 살 길을 물었을 때 이렇게 대답했다.

"첫째도 브로드밴드, 둘째도 브로드밴드, 셋째도 브로드밴드입니다. 한국은 브로드밴드에서 세계 최고가 돼야 합니다."

빌 게이츠도 손정의의 의견에 100퍼센트 동의했다. 대통령은 당장 지시를 내렸고 대한민국 초고속 인터넷의 역사는 이렇게 시작됐다. 그는 'IT강국 대한민국'의 미래를 제시한 것이었다. 그는 2006년에도 중국의 e베이라 불리는 '알리바바'에 투자해서 무려 13억 달러가 넘는 지분을 챙기는 데 성공했다. 얼마 전 손정의는 일본에서 실시한 조사에서 대학생과 신입사원들이 가장 존경하는 기업인으로 선정됐다.

제 1601호 2006년07월26일 발행 중소기업뉴스





생활문화
Life & Culture

3

[위대한 결단-표트르 1세]

조선소 노동자로 일한 황제

러시아의 표트르 1세(1672~1725)는 후진국 러시아를 개혁해서 강대국으로 만든 계몽군주이다. 그는 숭신수범하는 리더십으로 '위로부터의 개혁'을 추진해서 러시아의 면모를 일신했다. 당시 러시아는 유명한 농민반란의 지도자 스텐카 라진이 체포, 처형되는 등 아주 혼탁한 정치적 기류가 흐르고 있었다.

표트르 1세는 1682년 10살의 나이로 즉위해서 25세의 누이 소피아의 섭정 아래 공동통치를 하게 됐지만 1689년 소피아를 수녀원에 유폐시키고 정권을 공고히 했다. 이 청년 군주는 앞선 유럽의 문물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1697년, 250명이 넘는 대규모 사절단을 유럽에 파견했는데, 자신이 직접 사절단의 일원으로 참가했다. 그의 목적은 서구의 발달된 군사기술, 특히 조선술을 배우는 것이었다.

그는 네덜란드 동인도회사의 조선소에 신분을 숨기고 들어가서 조선술을 배웠다. 그 후 그는 런던으로 건

너가서 조선기술의 이론과 제도법도 공부했다. 그는 지적 호기심은 대단해서 가는 곳마다 질문을 서슴지 않았다. 그는 조선소뿐만 아니라 병원, 목공소, 해군시설 등 사회 전반에 대한 것을 모조리 관찰했다. 그러나 이런 공부를 하고 있는 도중 근위대가 반란을 일으키는 사건이 일어났다.

표트르 1세는 급거 귀국해서 반란을 진압했다. 그 후 그는 자신이 유럽에서 보고 듣고 배운 것을 토대로 러시아 사회 전반에 대한 대대적인 개혁조치를 단행하기 시작했다. 13세기 이후 러시아는 칭기즈칸에 정복돼 200여 년간 몽고의 지배를 받고 있었다. 그는 후진국 러시아를 부강케 하는 길은 몽고의 잔재를 완전히 떨어버리고 유럽화 하는 것뿐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표트르 1세는 우선 궁정귀족들의 수염을 자르게 하고, 여자들에게는 유럽식 복장을 입도록 했다. 그는 러시아 군에 대한 개편도 단행했다. 그는 육군과 해군의 양성고 서유럽과 러시아를 이어줄 항구 개척, 이 두 가

지의 사업에 명운을 걸었다. 1700년, 표트르 1세는 마
침내 발트 해로 진출했다. '서방으로의 창'을 얻기 위
해서였다. 그러나 당시 발트 해는 강대국 스웨덴의 활
동무대였다. 러시아는 덴마크, 폴란드와 동맹을 맺고
스웨덴에게 선전포고를 했다.

이른바 '북방전쟁' 시작된 것이다. 그러나 그해 11
월, 나르바 전투에서 4만 명의 러시아 군은 스웨덴의
찰스 12세가 이끄는 8천 명의 정예부대에 참패를 당
하고 말았다. 이에 충격을 받은 표트르 1세는 러시아
군의 개혁에 박차를 가했다. 그는 해군을 창설하고, 21
만의 육군을 키웠으며, 군수물자 생산 공장과 도로, 운
하를 건설했다. 당시 러시아의 군사비 지출은 국가재
정의 무려 3분의 2를 차지할 정도였다. 스웨덴과의 북
방전쟁은 21년간이나 계속됐는데 1721년 러시아의 승

리로 끝이 났다. 표트르1세는 이 전쟁을 수행하는 일에
엄청난 정력을 쏟았다. 그는 전투를 직접 지휘도 하고
심지어는 도끼를 들고 조선소에서 직접 작업을 하기도
했다.

표트르 1세는 개혁을 완성하기 위해서 천도의 필요
성을 느끼고 새로운 수도를 건설하기 시작했다. 새로
운 수도의 이름은 '표트르의 도시'라는 뜻인 페테르부
르크라고 붙였다. 새 수도가 완성되자 표트르 1세는 수
도를 모스크바에서 페테르부르크로 옮겼다. 표트르 1
세는 '차르' 칭호를 받고 '대제'라는 칭호로 불리게 됐
다. 그 후 러시아는 그의 꿈의 설계대로 유럽의 강국으
로 성장했다.

제 1600호 2006년07월19일 발행 중소기업뉴스

축 발 전

뜻깊은 창립이 무궁한 발전과 번영의
초석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한청판지공업(주)

대표이사 **이원진**

9월 1일 창립기념일을 축하합니다.

축 발 전

뜻깊은 창립이 무궁한 발전과 번영의
초석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삼양판지공업(주)

대표이사 **전인장**

9월 15일 창립기념일을 축하합니다.